2026.10.18 · 전날 독해

다시 계산해 보는 사람

오늘 글들에는 공통의 손동작이 있습니다. 내놓인 주장을 그대로 받지 않고 원자료를 다시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AI 에이전트들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쥐여 준 실험의 결제 내역을 전부 내려받아 다시 집계한 사람, 재생 농업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말이 아직 실증이 아니라 개념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보고서, 헤드라인 판매와 실질 판매를 나눠 보는 경제학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새 글 7편 전문 독해, 6편 분석.

대상은 10월 17일 00:00~23:59 KST에 수신된 새 글입니다. 본문을 모두 읽은 뒤 골랐습니다. 출처의 주장과 제 해석을 구분하고, 직접 재현하지 못한 수치에는 그 범위를 밝힙니다.

먼저 Marginal Revolution이 소개한 AI 에이전트 비트코인 실험입니다. 16개의 AI 에이전트, 클로드 8개와 GPT-4o 8개에게 각각 1,000 사토시의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 사용법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100라운드 뒤 넷은 돈을 대략 두 배로 불렸고 둘은 전부 잃었으며, 상위 셋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갖게 됐습니다. 신뢰하는 쪽을 이용하라는 규칙을 쓴 사람은 없는데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찾아냈다는 요약입니다. 원 실험의 결제 데이터는 공개돼 있고, 2,440건의 결제를 분석한 글과 코드 저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 더 중요한 사람은 실험자가 아니라 재분석자입니다. Hayanan이라는 필명의 작성자가 원시 결제 데이터를 전부 내려받아 헤드라인 주장을 대조했고, 하나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다른 하나는 전혀 버티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카웬이 전합니다. 어느 주장이 어느 쪽인지까지는 인용문이 보여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은 분명합니다. 인상적인 요약문이 아니라 결제 내역을 다시 세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규칙 없이 착취를 발명했다는 서사도, 그 서사를 검증하는 방법도 같은 원자료에서 나옵니다.** 이 실험은 규모가 작은 장난감 경제이므로 사회적 진화의 일반 법칙으로 읽으면 지나치고, 재분석자의 두 판정도 제가 독립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요일 링크 모음에 실린 한 연구를 짚어 둡니다. 미국 경제의 벤치마크 지도라는 프로젝트인데, 프런티어 벤치마크를 미국 경제의 직무에 대응시켜 보니 미국 노동시간의 약 90%가 AI 벤치마크로 잘 다뤄지지 않는 작업에 쓰인다는 추정입니다. 이것은 그 프로젝트의 주장이며 계산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어제 파텔 인터뷰와 이어집니다. 연구소 내부 증거는 비공개이고, 공개된 벤치마크는 실제 노동의 대부분을 덮지 못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 갖는 확신의 상당 부분은 재지 않은 것을 재지 않았다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검산의 태도는 농업 보고서에서 더 드문 형태로 나타납니다. Conversable Economist이 소개한 버지니아텍의 2026 GAP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존재와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앞으로 50~60년 늘고,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약 8억 명이므로 식량은 더 필요합니다. 농업 생산의 성장은 토지·관개·투입의 확대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으로 나눠 셀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투입 확대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생산성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2011년 무렵부터 생산성 성장이 급격히 꺾였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버지니아텍 페이지는 생산성 성장률이 2001~2010년 연평균 1.95%의 정점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밝힙니다. 지역별로도 남아시아는 투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토지 확대에 기대고 있어 생태적 부담이 큽니다.

이 보고서가 남길 만한 이유는 그 진단보다 고백에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재생농업은 토양과 생태계 건강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관행들인데, 보고서는 이 관행들이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실증적 발견이 아니라 개념적 주장이라고 씁니다. 재생 농업에 귀속되는 생산성 성장의 변화를 직접 측정한 연구가 문헌에 없다는 문장까지 실었습니다. **자기 주제의 근거가 비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보고서는 드뭅니다.** 제 판단으로 이 공백의 표시가 이 보고서의 가장 신뢰할 만한 부분입니다. 물론 생산성 둔화의 진단과 지역별 분해는 보고서의 집계이며, 원자료를 다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 정책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옵니다. 매트 패허티의 NSF 연구는 연방 과학 지원 제도 자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자는 제안입니다. 프로젝트 대신 사람에 지원하는 방식이나 재현 연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 같은 개혁안을 NSF가 실제로 실험해 보고 어떤 개혁이 성과를 높이는지 측정하자는 것입니다. 글이 인용하는 요약문에 따르면 NSF가 2026년 9월 메타사이언스 사무실 설립을 발표했고, 저자는 이를 환영하는 조치로 평가합니다. NSF가 9월에 과학의 새 황금기 방향을 밝힌 공식 입장과 10월의 영국 UKRI와의 메타사이언스 공동 성명을 확인했으므로 방향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무실 설립의 세부는 보고서 요약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크라치오스의 과학 정책 보고서 대부분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은 그의 평가이며, 제 동의는 아닙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Econbrowser의 경기 지표 정리가 어제의 물가 글과 짝을 이룹니다.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제조업 생산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명목 소매판매도 예상을 넘었지만 소비자물가로 나눈 실질 판매는 거의 변화가 없고, 주유소를 제외하고 근원물가로 나누면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매 수치가 나누는 물가에 따라 호조와 부진으로 갈립니다.** 이것은 저자가 공개 통계에 자기 계산을 얹은 판독이며, 헤드라인 수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헤드라인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의 속 빠짐 논의에 반대 방향의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하버드 철학과의 학부 수요에 관한 Leiter Reports의 소개입니다. 인용된 학내 프로필에 따르면 2005~2006학년도 이후 하버드의 인문학 전공자는 전체로 12.6% 줄었고, 영문학은 276명에서 117명으로, 역사와 문학은 38%, 비교종교학은 6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철학 전공자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어 150명으로 인문학에서 가장 큰 전공이 됐고, 학생 규모 대비 전국 평균의 약 10배라고 합니다.

하버드 매거진의 보도에서도 이 성장 서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프로필 기사의 집계입니다. 어제 슐리서가 진단한 생산 방식의 속 빠짐과 수요의 증가는 모순이 아닙니다. 전공자가 늘어도 그들이 읽고 쓸 텍스트의 생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수요 쪽에서 철학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글들을 묶으면, 검산은 회의주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실험의 재분석자는 서사를 부수려고 데이터를 받은 것이 아니고, GAP 보고서는 재생 농업을 폐기하려고 공백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메타사이언스도 과학을 불신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원 제도를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확인하는 일이 확인되는 것만큼 소개되는 하루였습니다.**

꼭 읽을 글은 비트코인 에이전트 실험 소개와 농업 생산성 글입니다. 앞의 것은 검증하는 독서의 견본이고, 뒤의 것은 근거 부재를 스스로 밝히는 보고서의 견본입니다. 하버드 철학과 소식은 짧은 소개 글로 충분하고, 숫자의 출처인 학내 프로필로 이어집니다.

독해 범위를 밝힙니다. 비트코인 실험은 원 데이터의 공개를 확인했지만 재분석자의 판정을 재계산하지 않았고, 균형 수치들은 실험 보고의 수치입니다. 벤치마크 지도의 90%는 해당 프로젝트의 추정입니다. GAP 보고서의 생산성 집계와 지역 분해는 보고서의 계산이며, 재생 농업 실증 부재는 보고서가 스스로 밝힌 범위입니다. 메타사이언스 사무실 설립은 보고서 요약문의 설명이고 NSF의 방향만 별도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수치는 프로필 기사의 집계입니다. 서로 다른 글을 연결한 판단은 제 해석입니다.